

of the gospel. The gospel was passed on to us so that we would also pass it on. For the last few centuries, we have gone into many nations and peoples all across the world to do just that. Some have laid down their lives in bringing the gospel. The work is continuing and it must continue.

But, some of us face a special situation. Theoretically speaking, we are the people that have to go overseas and share the gospel. but people of other nations have come to where we are. Not everyone faces this kind of situation. But God has opened up this special opportunity for us. This cannot happen by coincidence but only by God's providence.

California, which has a large immigrant population among other place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given this special opportunity. We must not lose this opportunity. Many of them have immigrated for better living situations. But spiritually, they are in a greater need for the gospel. It is a special blessing for churches to unite for this one worthy cause. We are once again gathering this year for One Voice Conference.

Our dream is to share the gospel to different peoples - to people who have already come near us and are waiting to hear the message. When God gave dreams to Joseph, God fulfilled the dreams. When God gave dreams to Underwood to share the gospel to Korea, God grew Korea into a missionary sending nation. Today, as we are gathered here, we dream of sharing the gospel to unreached people groups in the Bay Area. This is a dream God has given to us. Therefore, God will make it happen. I praise God who will fulfill the dream.



이용호목사 (Rev. Yong Ho Lee),
상향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n Francisco)

21세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은 것 같은 생각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대에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남은 과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미전도 종족에 대해 상당히 발전된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종족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캐머런 타운센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을 통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시대가 열렸고, 랄프 윈터에 의해 '종족집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의 아버지들을 통해 지식이 쌓여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한계와 생각의 한계를 통해 여전히 '종족 무지'는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고된 노력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역이 바로 원 보이스 사역입니다. 원보이스 사역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먼 이웃나라에 가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집과 교회 앞에 미전도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원 보이스는 우리의 무지를 벗어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원보이스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 보이스 사역을 통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맑 한 방울 한 방울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베이지역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은 축복입니다.

We may feel we have all the information we need on our hand in this 21st century. Yet it seems to be still difficult to get out of ignorance in the midst of the abundant information. It seems to be especially so for missions.

Though we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on the knowledge of the un-